제17편 - 제3신앙촌시대〈제4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66회)

제17편
제3신앙촌 시대(제4부)
一. 완성자 구세주 출현
二. 종교(宗敎)를 개종(改宗)함
三. 결혼을 금지시키고 부부를 갈라서게 함

三.結婚을 禁止시키고 夫婦를 갈라서게 함

1) 결혼금지, 부부 갈라서게 함

예수는 가짜 구세주이며, 영모님은 천상천하의 유일한 상제 하나님이며, 밥도 먹고 배설도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말씀을 하여 전 교인들이 이 말씀들을 소화 못하고 있을 때에 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부부를 갈라서게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게 된다. 1979년부터 198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사실 이때 전도관 사람들은 제 정신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저 영모님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는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원래 전도관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물론 영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다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할까 그렇게 인식이 되어 결혼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신앙으로 달려갔다. 눈길로나 마음으로나 죄를 짓지 말라고 노상 말씀하시는 영모님의 말씀은 남녀간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부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

그런데 돌연 1973년부터 영모님은 다들 결혼을 하라고 독려를 하시어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영모님의 강력한 권면에 의하여 못 이기는 체하고 독신서약같은 것은 휴지화 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1973년부터 결혼을 하였으니 아들딸을 몇 명씩 낳게 되었고, 그 자식들은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나이까지 되었다.

또한 이 시점은 한참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극에 달해 있을 시점이었다. 그런 시점인 1980년에 영모님은 돌연 금혼령을 내리시고 결혼한 부부들은 갈라서서 헤어지라는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다.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지도 말고, 서로 전화를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자식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부부가 만나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엄하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다들 자식들은 부인쪽에서 데려갔는데 남자들은 자식들이 눈에 어른거려서 못 견디겠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 다들 자식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애들이 계속 아빠를 찾으면서 울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려고 해서 애를 먹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온다. 그러니 더더욱 가슴이 저려온다.

다음에는 부부간에 법적으로 갈라서고 호적상으로도 별거인으로 정리해 놓으라고 하였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후부터 예배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보게 되었다. 물론 신앙촌을 비롯하여 전국제단이 다 그랬다.

2) 48억이 음란죄 짓는 것보다 생수 먹은 자 한 명의 죄가 더 크다

금혼령을 내리고 부부를 갈라서게 한 다음부터 영모님은 작심을 하신 듯 매일같이 이 문제를 말씀하셨다.

단상에서 설교하시는 박태선 장로님

"지옥가고 구원얻는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는데 각자 알아서 하라(82.3.8)"라고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연장을 시키면서 기회를 주어 보려는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지옥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더 권고도 하지 않겠다"라고도 하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을 꼭 감고 순종을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여 순종을 한 것이다.

"생수 먹고 무량대수 마귀 들어간 너희놈들이 밤새도록 끝도 없이 쏟아내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밤새도록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쏟아내는 것을 당신이 소탕해내는 것이 너무 힘이 들다고 하신 것이다.

"48억 음란죄 짓는 것보다 생수 먹은 자 하나가 짓는 것이 더 큰 마귀다." "전도관 나온 놈, 전도관 것들이 48억 짓는 것보다도 마귀세력을 꺾고도 남는 것을 밤새도록 소탕해도 죄의 세력이 오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라고도 하였다.

"감람나문지 대추나무 가지라는 개새끼들 미친놈들. 썩은 깡통에 땜질하기야. 구역질이 나. 물보다 똥이 더 들어가. 때려죽여도 분이 안풀려(82.7.19.)"

영모님은 정말 분통이 터지시는 것이다. 생명을 바쳐서 일구어놓은 터전에서 자란 가지란 것들이 다 마귀자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구세주 한분을 세우기 위한 역사였다고는 하나 그 많은 공력을 들인 것이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신 것이다.

"온 세상 마귀가 기장에 집결했다(82.3.15)"라고 발표하신 영모님이시다. 그 마귀는 영모님인 당신이 해산의 수고 끝에 영적으로 낳아 세우실 구세주가 연단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 마귀들의 시선을 영모님에게로 쏠리게 하여 온 세상의 마귀를 당신이 몽땅 끌고 다니신 것이다. 영모님이 유일한 승리자인 것처럼 마귀들에게 알려서 그 마귀들이 다 영모님을 꺾기 위하여 영모님을 따라서 기장까지 따라가서 집결하게끔 하셨다.

그리고 그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가지들이란 것들이 다 영모님을 영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표면으로는 영모님을 생명을 걸고 따르는 것처럼 하였으나 영적으로 볼때에는 영모님을 대항해서 영모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많은 가지들이 하나같이 다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마귀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3) 이것도 쇼를 하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영모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인지를 밝혀보아야 하겠다.

그토록 눈길로나 마음으로나 범죄치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시던 영모님은 왜 1973년도에 다들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 참으로 의문이 많은 내용이다.

"내가 지금까지 쇼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쇼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81.12.28)"라고 하셨다. 그러면 이것도 그분이 쇼를 하신 것인가?

사실 어떤 종교 경전을 보든지 음양(陰陽)의 원리를 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남녀간의 음양의 원리를 따르면 성불도 중생도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개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마19:12)"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라고 했다. 그러니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고자가 되어야만 갈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고자가 안되고 남녀관계를 (부부라는 관계도) 끊지 않고 지속하면 절대로 중생을 못하고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말이다. 음양의 법칙은 마귀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법칙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중성신(中性神)의 법칙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마22:30). 이것은 천국자식들로 키우는 원리 중에 가장 기본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전도관 초기에는 적어도 3신앙촌에 들어가기 전에는 영모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원리에 철저했다. 그리고 영모님도 그와 같이 가르치시면서 이끌어 주었다. 그런데 왜 영모님은 올바른 원리를 무시하시고 다들 결혼을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60회

말동지사(末動之事)를 당하기 전에 정도령을 찾아야 목숨을 보전하리라

隱祕歌(九) 은비가

兩雄相爭長弓一射 양웅상쟁장궁일사
二十九日疾走者 이십구일질주자
仰天痛哭怨無心矣 앙천통곡원무심의
又日末世之運張姓趙哥
우왈말세지운장성조가
出馬自衆之亂 출마자중지란
庚炎辛秋怪變層生 경염신추괴변층생
逆獄延蔓矣壬三癸四 역옥연만의임삼계사
子丑寅卯鼠候相爭 자축인묘서후상쟁
千祖一孫 천조일손
雙牛相鬪 百祖一孫 쌍우상투 백조일손
虎龍相克百祖三孫 호룡상극백조삼손
兎蛇噴火百祖十孫 토사분화백조십손
龍馬有事一祖十孫 용마유사일조십손

두 영웅이 서로 싸우는데 장(張)씨가 긴 활(長弓)을 한 번 쏘니 병든(疾질) 조(趙=二十九日疾走者)씨가 화살을 맞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죽으리라. 조(趙)는 달릴 주(走)자와 이십구일(二十九日=小月)의 합자이다. 원무심(怨無心)은 죽을 사(死)자의 파자.

또한 이르기를 말세의 운에 장(張)씨와 조(趙)씨가 출마를 하는데 같은 무리(당黨)에서 자중지란(自衆之亂)이 일어나니라. 경자년(庚子年) 여름과 신축년(辛丑年) 가을에는 괴변이 겹치느니라. 역모(逆謀)가 드러나서 투옥되는 일이 만연하리니 이는 임인 계묘의 일이라. 임삼(壬三) 계사(癸四)는 자축인묘 중에서 세 번 째는 인(寅)이고 네 번째는 묘(卯)이니 임삼(壬三)은 임인(壬寅)이며 계사(癸四)는 계묘(癸卯)다.

쥐(子자)에서 원숭이(申신)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투기만 한다면 천조일손(千祖一孫) 즉 천 조상에 한 자손만 살아남게 되며 두 소가 서로 다투면 즉 구세주 정도령을 받드는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 서로 싸우면 백조일손(百祖一孫) 즉 백 조상에 한 자손만 살아남게 되며, 호룡(虎龍) 호랑이와 용이 서로 상극하면(인묘진寅卯辰에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면) 백 조상(할아버지)에 세 자손만 살아남게 되며, 토(兎=卯묘)에서 사(蛇=巳)에 이르러 화우로(火雨露) 삼풍해인이 내리면 백 조상(할아버지)에 열 자손이 살아남게 되리라.

갑진(甲辰) 경오(庚午)월에 천지공사가 있으면 한 조상에 열 자손이 살아남으리라.

觀覺此書 心不覺者下愚不移
관각차서 심불각자하우불이
上下分滅矣 상하분멸의
上字之意貪官誤吏富貴客
상자지의탐관오리부귀객
富不謀身沒貨泉 부불모신몰화천
孔孟詩書舊染班下字之意
공맹시서구염반하자지의
牛性馬性一字無識 우성마성일자무식
高人望見亦失時 고인망견역실시
出入從事不覺 출입종사불각
上下兩人亦下愚 상하양인역하우
不移末動之事怨無心矣
불이말동지사원무심의
嗟乎哀哉人人覺 차호애재인인각

이 책을 보고 깨달아야 하느니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중의 어리석은 자요 말동지사(末動之事)를 당해도 정도령을 찾지 않으니 상(上) 즉 부유(腐儒), 부패한 선비는 선비대로, 하(下) 즉 일자무식(一字無識)꾼은 무식꾼대로 나뉘어 멸망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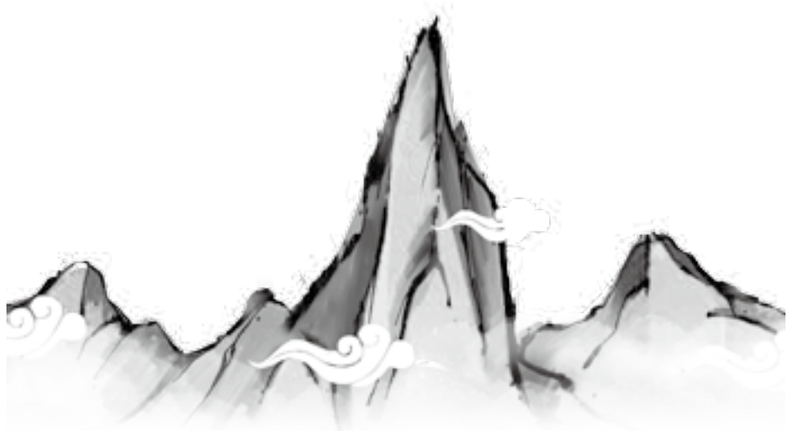
상(上)자의 뜻은 탐관오리(貪官誤吏)와 부귀만을 탐하는 자를 말하며 돈에 빠져서 부(富)가 내 몸을 죽지 않도록 해주지 못하는 것도 모르는 자들로서 공자 맹자의 시경 서경을 읽으면서도 참 뜻을 모르고 구습(舊習)에 물든 양반을 말하느니라. 하(下)자의 뜻은 우성도 마성도 모르는 천지도 모르는 일자무식자(一字無識者)를 말하느니라.

높은 식견을 가진 자도 때를 놓치면 들고 날 때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되느니라. 상하(上下) 양편에 속한 사람들 모두 역시 어리석은 자 들이니라. 말동지사(末動之事=말입의 시기의 일)를 당해도 정도령을 찾지 않으니 죽을 수밖에 없으리라. 아! 슬프고 애처롭도다. 사람들이여, 사람들이여! 마음에 깊이 깨달아 십승 정도령을 꼭 찾아가야 하느니라.

五運之中 一運論則 오운지중 일운론즉
赤血千里 四年間 적혈천리 사년간
二運論則 이운론즉
赤血千里 二年間 적혈천리 이년간
三運論則 삼운론즉
赤血千里 一年間 적혈천리 일년간
四運論則 사운론즉
赤血千里 月間 적혈천리 월간
五運論則 오운론즉
赤血千里 日間 적혈천리 일간
二字空面無空里 이자공면무공리
漢都中央指揮線 한도중앙지휘선

말세에 겪게 될 다섯 가지의 비운(悲運)이 있으니 첫 번째 운을 논한 즉 붉은 피가 천리(千里)에 4년간 흐름이니 곧 임진왜란이요, 두 번째 운을 논한 즉 붉은 피가 천리(千里)에 2년간 흐름이니 6.25사변이요, 세 번째 운을 논한 즉 붉은 피가 천리(千里)에 1년간 흐름이니 병자호란이요, 네 번째 운을 논한 즉 붉은 피가 천리(千里)에 몇 달간 흐름이니 4.19혁명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운을 논한 즉 붉은 피가 십 일간 흐름이니 천지개벽의 와중(渦中) 일이니라. 면(面)과 리(里) 두 글자가 있는데 면(面)도 텅 비어있고 리(里)도 아무도 없고 비어있으니 즉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던 땅에서 천지공사를 하고 있으니 한양(서울)의 중앙에서 지휘하듯 하느니라. 천지공사 하는 곳에서 동쪽으로 달아나는 자는 죽고 서쪽에서 들어오는 자는 살리라.

東走者死西入生 동주자사서입생
上二字面下二里 상이자면하이리
吉星指示面里明 길성지시면리명
南東面臥牛長壽地 남동면와우장수지
素砂範朴天旺地 소사범박천왕지
富內曉星延壽地 부내효성연수지



東春新垈 住地 동춘신대 주지
蘇萊白石桂樹地 소래백석계수지
桂陽朴村仙住地 계양박촌선주지
此地通合星照臨 차지통합성조림

서기동래(西氣東來)하니 동방 한국 땅을 떠나면 살 법방이 없고 서방에서 동방 한국으로 오면(동방 한국에 나타난 청림도사 정도령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느니라. 위로는 면(面)자 앞에 두 글자가 있는 것과 아래로는 리(里)자 앞에 두 글자가 있는 곳이니 길(吉)한 별이 밝게 비추어 가리키는 면(面)과 리(里)이로다. 소래면(蘇萊面)과 계수리(桂樹里)를 말한다. 남동(南東)쪽을 향하여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불로장수(不老長壽)하는 땅이니라.

소사(素砂) 범박(範朴)의 땅은 하늘의 기운이 왕성한 곳이요. 부평(富平) 부천 관내로 새벽별(효성曉星=길성吉星)을 상징하는 주인공이 나와서 수명을 연장하게 해주는 곳이요. 동방에 영원히 봄만 있는 신천지의 터전으로 기쁨과 쾌락 속에서 살아갈 곳이요. 소래(蘇萊) 소사(백석白石) 계수(桂樹)의 땅이요. 소래, 소사, 계수, 범박은 신선이 사는 곳이요. 이곳은 새벽별이 밝게 비치어 임(臨)하는 곳으로 하늘의 조(曺=조미단풍구비 조표풍지인 궁을십승)씨가 나와 유불선을 하나로 통합하는 곳이니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